

##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공격성감소프로그램의 효과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적용을 중심으로-

박 현 선\*

### 1. 서론

#### 1. 청소년 비행과 공격성

초기 비행청소년 연구자들은 약물남용, 성비행 등과 같이 다양한 비행의 하위유형별로 위험요소를 밝히는 작업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비행과 같은 다양한 위험행동(risk behavior)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소들간에는 일정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조직화하고 전체적인 개념적 틀로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전의 접근에서는 각각의 비행행동이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원인고찰과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약물남용이나 비행, 알콜남용, 성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강한 공변관계를 갖는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Jessor, 1991).

이와 같이 유형은 상이하지만 서로 관련성이 깊은 청소년비행 행동들과 관련된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공격성이다(Dryfoos, 1989). 특히 폭력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아동기 중기에 사소하게 시작된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기인 17세 경에 이르러 보다 빈번하고, 심각한 공격성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이다(Coie & Dodge, 1998).

기존에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별로 공격성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연구해오다가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과학연구소

최근에는 공격적 행동이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변화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격성과 비행의 중첩정도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박현선, 김유경, 1997). 이러한 시도들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동시적 발생률(comorbidity)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 및 발달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Menard & Elliott, 1994).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 Loeber와 Stouthamer-Loeber(1987)가 수행한 비행연구의 메타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 초기에 자신의 공격성을 발산하지 못한 자녀들이 후에 비행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히 폭력 비행을 보인 대다수는 어려서부터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같은 환경체계와 관련해서 비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격성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박현선, 김유경, 1997).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현황에서도 우연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23.4%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백서, 1994)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동기가 어처구니없게도 자신의 충동적인 공격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은 발달적으로도 청소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이 가시화된 비행행동으로 외현화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일차 예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호관찰 청소년과 같이 이미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격성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일반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왔다. 그러한 연구들은 크게 분노조절훈련(김백영, 1997; 남궁희승, 1997; 류소영, 1996)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나, 대인관계나 사회기술훈련, 주장훈련 등의 자기 표현력 증진과 관련된 행동적 프로그램(김성림, 1997; 박소연 1996; 박해홍, 1995; 이현경, 1992; 윤진보, 1989), 문제해결력 증진이나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인지적 프로그램(김계원, 1988; 이재경, 2000)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소수지만 음악치료(서경아, 1996)나 심성훈련(이일권, 1996)과 같은 기타 방법들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단일한 이론적 모델을 취하고, 각 이론적 시각에서 공격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공격성의 매커니즘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의 통합이 공격성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고,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일반

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Goldstein과 Glick의 공격성대체프로그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RT)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보다 바람직한 요소들로 대체하는 다중모델적 접근인 ART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문화 및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공격성 대체 훈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RT)의 구성요소

기존에 행해졌던 비행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충동조절 능력 및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논의한다. 비행 청소년들은 평소에는 공격적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억제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촉발자극이 주어지면 심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경미한 폭력범보다 극단적인 폭력범죄에게서 이러한 성격특징이 더 많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침해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죄의식을 경험하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김성이외, 1996).

ART 또한 이러한 비행관련 연구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서 만성적으로 공격적인 청소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중모델적(multimodal) 개입방법이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친사회적 행동의 교과과정으로 설계된 사회기술훈련, 자신의 분노반응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다른 두요소를 통해 배운 기술을 적용해보는 도덕적 추론훈련 과정으로 구성된다(Goldstein & Glick, 1994).

ART에서 구조화된 학습이라고 설명되는 사회기술 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이전(transfer) 등의 기법적요소들은 상호작용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이러한 기술의 유지와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데 활용된다. 구체적인 사회

1) 1차 시범운영과정의 진행을 맡았던 해든누리 상담실장 이윤애선생님(전북대 석사과정)과 본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 2차 집단의 보조진행자로 참여한 송성미외 전북대 석사과정 실습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초기 ART프로그램 세미나를 함께 한 이상균선생님(가톨릭대)과 김유경(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김진숙(서울대 박사과정), 좌현숙(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동학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기술로는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긍정적인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포함된다(Curulla,1991).

ART의 분노조절 훈련 부분 역시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되는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이전등의 기술들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목적은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자기이해 증진에 있다. 선행조건(Antecedent)-행동(Behavior)-결과(Consequences)의 분노사이클에 근거하여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이완대처기법과 같은 분노 감소기법을 사용하고, 자기지시, 자기평가, 자가보상 등의 방법을 수행해보고,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Curulla,1991).

마지막으로 도덕성 훈련은 도덕적 딜레마 토론으로서 Kohlberg의 가설 즉, 인지적 갈등에 의해 도덕적 인지추론과정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달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딜레마 회기의 구성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2)즉흥적인 자신의 입장을 논의하고 (3)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추론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4)자신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다시 상황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이다. Goldstein(1987)은 이러한 도덕성교육을 행동적 요소인 구조화된 사회기술 연습, 정서적 요소인 분노관리에 더하여 인지적 요소로서 포함시켰다. 그는 앞의 두 요소에 도덕성 훈련을 보완함으로써 공격성 감소에 시너지적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Curulla,1991).

한편 Goldstein 과 Glick은 이상의 세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ART의 공격성 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비행청소년 감독기관인 Annsville Youth Center에서 ART 집단과 간단한 행동지도집단, 전혀 지도가 없는 통제 집단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새로운 기술 습득 및 공격적 행동화 양상의 빈도가 ART 집단과 그외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후 MacCormick Youth Center에서도 입증되었다. 단 MacCormick Youth Center의 평가 결과에서는 공격행동화(acting out)양상에서는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sville은 내부적으로 폐쇄기관이 아니고, 60명의 청소년이 하나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반해 MacCormick은 독방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Ansville에 비해 행정인력도 2배가량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통제적이고, 상당히 엄격한 분위기였다. 따라서 공격적 행동화 양상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낮을 수밖에 없는 즉, 저점효과(Floor effect)에 의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Goldstein & Glick, 1994).

앞서 논의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ART에서 기반하고 있는 세가지 측면에서의 공격성 감소 요소는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노조절과 사회기술을 동일한 기법을 통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요소를 통해 습득한 바람직한 기술들의 일반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활용한 것도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1998년 12월 22일 - 1999년 1월 26일에 상해폭행과 특수절도 비행력을 가진 만 14세부터 17세 까지 현행 학생 9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수행하여 운영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내용 및 평가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보다 타당하게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1999년 5월 8일-7월 10일의 기간동안 상해폭행과 특수절도 비행력을 가진 만 16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매주 1회씩 10주간 운영하여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이라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여건상 무작위 원칙을 고수할 수 없어서 배합을 통해 실험전 집단 동질성을 확보하는 정태적비교설계(Static-Group Comparison)를 활용하였다. 즉, 전북대 해든누리 상담실에 의뢰된 폭력상해범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유사한 배합으로 실험 및 통제집단에 배치하고, 프로그램 사후에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효과성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공격성 평가척도, 대인관계 변화척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 변화척도, 도덕적 판단능력검사이다. 공격성 감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공격성 평가척도(Aggression Inventory, AI)는 Gladue(1991)가 개발한 Aggression Inventory(AI)로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82이었다.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는 Schlein, Guern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RCS)을 전석균(1994)이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88이었다.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평가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로서 Heppner와 Peterson등이 개발한 것을 전석균(1994)이 재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88이었다.

마지막으로 도덕발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도덕적 판단능력검사(Defining Issues Test, DIT)로서 Rest가 개발한 척도를 황용대(1992)가 사용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진술들은 수준 I, 수준 II, 수준 III의 반응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3개의 도덕상황에 6개의 정당화 진술로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67이었다.

최종분석에 활용된 실험 및 통제집단 성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여 연령은 16-19세 정도에 분포하고 있고,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7-18세 가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단연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실험집단의 경우 전원이 남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성적은 대다수가 21-40등 사이 즉, 중간정도의 학습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실험 및 통제집단 성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변 수         | 실험 집 단     | 통 제 집 단    |
|-------------|------------|------------|
| <b>연령</b>   |            |            |
| 16세 이하      | 3 (23.1)   | 1 ( 7.7)   |
| 17세 -18세    | 7 (53.8)   | 8 (61.5)   |
| 19세 이상      | 3 (23.1)   | 4 (30.8)   |
| 계           | 13 (100.0) | 13 (100.0) |
| <b>성별</b>   |            |            |
| 남           | 13 (100.0) | 10 (76.9)  |
| 녀           | 0 ( 0.0)   | 3 (23.1)   |
| 계           | 13 (100.0) | 13 (100.0) |
| <b>학생여부</b> |            |            |
| 학 생         | 13 (100.0) | 10 (76.9)  |
| 학생아님        | 0 ( 0.0)   | 3 (23.1)   |
| 계           | 13 (100.0) | 13 (100.0) |
| <b>성적</b>   |            |            |
| 1 등-20등     | 3 (23.1)   | 1 ( 7.6)   |
| 21등-30등     | 6 (46.2)   | 3 (23.1)   |
| 31등-40등     | 3 (23.1)   | 4 (30.6)   |
| 41등-50등     | 1 ( 7.6)   | 1 ( 7.6)   |
| 비해당(비학생)    | 0 ( 0.0)   | 3 (23.1)   |
| 계           | 13 (100.0) | 13 (100.0) |

#### IV.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회기술 및 분노조절 기술을 습득

하게 하고, 합리적인 추론과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격성을 감소하고자 함이다.

<표 2> 프로그램 내용 개관(I)

| 구분                | 회기         | 목표   | 활동내용  | 매체                                     |
|-------------------|------------|--|---|--|
| 공감훈련 및 긍정적 감정표현하기 | 1회기<br>90분 | 1.구성원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기 개방과 신뢰감을 형성한다.<br>2.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한다.<br>3.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1.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설명<br>2.자기소개하기<br>4.프로그램 참가서약서 작성 및 집단의 규칙 정하기<br>5. 비디오 시청<br>6. 지금 내 느낌과 표정까지 표현<br>8. 자신의 긍정적 감정 전달하기 연습  | 워크북<br>녹음기<br>비디오 카메라<br>비디오 테이프       |
| 자신의 분노다루기         | 2회기<br>90분 | 1.분노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분노 표현방식을 인식한다.<br>2.분노감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 1. 비디오 시청<br>2. 화가 날 때 어떻게 되는가<br>3. A-B-C 단계에 맞게 자신의 경험 얘기하기<br>4. 분노감소를 위한 방법 활용  | 워크북<br>비디오 테이프<br>녹음기<br>필기도구          |
| 타인의 분노에 반응하기      | 3회기<br>90분 | 1.자신이 남을 화나게 하는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한다.<br>2.타인의 분노에 반응하는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한다.                                | 1. 비디오 시청(A-B-C 단계 적용)<br>2.① I-message 전달법을 설명하고 연습하기, 그가 왜 화를 냈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질문하기<br>②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표현 하기<br>3.내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얘기하기 | 워크북<br>비디오 테이프<br>녹음기<br>필기도구          |
| 문제해결과정            | 4회기<br>90분 | 1.자신의 문제해결방식의 장·단점을 인식한다.<br>2.바람직한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한다.  | 1.기존 자신의 문제해결방식 탐색하기<br>2.문제해결 3단계 인식하기<br>① 문제파악하기<br>② 다양한 해결책 모색<br>③ 최선의 해결책 선택<br>3.문제해결 3단계 포스터 만들기   | 칠판<br>워크북<br>녹음기<br>전지<br>물감           |
| 갈등 해결             | 5회기<br>90분 | 1.상호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부분임을 이해한다.<br>2.갈등을 적절하게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1.비디오 활용<br>2.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br>3.역할극 "친구와의 다툼"-상황을 간단히 제시<br>4.싸움말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방법 모색하기<br>5.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문제해결 3단계 적용   | <문제해결3단계차트><br>워크북<br>녹음기<br>비디오테이프    |
| 집단압력 다루기          | 6회기<br>90분 | 1.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안다.<br>2.집단의 압력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                                   | 1.비디오 시청<br>2.역할극 "우리 본드 할래?"<br>3.자기주장적 의사소통 방법 연습<br>4.주장적이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자세   | 문제해결차트<br>워크북<br>비디오테이프<br>녹음기<br>필기도구 |

<표 3> 프로그램 내용 개관(II)

| 구분       | 회기          | 목표   | 활동내용  | 매체                                   |
|----------|-------------|--|---|--------------------------------------|
| 용서와 자존감  | 7회기<br>90분  | 1.용서발달 단계를 이해한다.                                 | 1.용서해 준 경험 얘기하기<br>2.용서를 해 줄 때의 느낌 공유하기<br>3.사례를 제시하고 주인공들의 삶 이야기 하기, 결말예상하기<br>4.주인공들의 용서에 대해 토론해 보기<br>5.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존감이 생겼을 때 경험 공유<br>6.진정한 용서의 결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을 인식시켜준다. | 용서단계차트<br>비디오테이프<br>녹음기              |
| 도덕적 선택   | 8회기<br>90분  | 1.바람직한 도덕적 판단 능력을 함양 한다.                         | 1.도덕적 선택이란<br>2.딜레마토론-“중고차”<br>3.딜레마토론- 예측의 사다리 타기<br>4.딜레마 토론- 모의법정 운영   | 용서단계차트<br>비디오테이프<br>녹음기              |
| 행복한 삶    | 9회기<br>90분  | 1.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 1.비디오시청 -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의 (딜레 마 토론)<br>2.가치관 경매<br>3.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딜레마 토론)   | 가치관목록<br>종이돈<br>워크북<br>녹음기<br>비디오테이프 |
| 환상의 타임머신 | 10회기<br>90분 | 1.프로그램을 회고하고 평가한다.<br>2.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 1.환상의 타임머신<br>2.마음의 선물<br>3.사후검사 실시   | 워크북<br>녹음기                           |

원래의 ART 프로그램은 주3회씩 10주로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인데 반해 본 연구 대상인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므로 이러한 집중적 회기 편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ART원안대로 10주간 진행하되, 회기는 주 1회로 제한하였다. 회기수를 줄이고도 세가지 구성요소를 고루 포함시키기 위해 1-3회기까지는 분노조절과 관련된 정서적 요소를 4-6회기까지는 바람직한 사회기술 습득과 대인상황에서의 합리적인 문제해결기술을 습득하고, 7-9회기까지는 도덕적 상황을 대인상황인 용서관계를 통해 이해시키고 도덕적 딜레마 토론을 경험하게 구성하였다. 마지막 10회기는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조망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하는 종결회기로 진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기별 구성과정을 살펴보면, 분노조절의 경우 부정적 감정인식과 자신의 분노 및 타인의 분노에 대한 대처를 ART 원안의 ABC 사이클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기술 훈련 부분에는 비행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로 또래압력이나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문제해결하도록 역할극을 통해 연습해보도록 구성했다. 역할극을 비디오테이핑하여 시연한 자리에서 자기평가(self-moni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동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덕성 부분에서는 ART의 원안이 주로 동일한 형식의 도덕적 딜레마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비행청소년들의 인지적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과정에 대한 인식을 먼저 교육한 뒤에 딜레마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딜레마 토론에서는 이전 회기에서 배운 친사회적인 문제해결기술과 분노조절 기술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인적 상황에서의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용서발달단계 및 가치관 경매를 통해 도덕발달 수준을 전달한 것이 본 프로그램과 ART 원안의 도덕성 훈련과의 차별적인 측면이라고 하겠다.

## V. 과정 및 효과성 평가

시범 운영과정을 통해서 수정보완할 점을 찾고자 진행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성원이 유익하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진행시간과 길이에 대해서는 30%정도의 성원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부적절의 이유로는 1회기당 90분 정도의 길이가 다소 길다고 답한 경우와 시작 시간이 토요일 오후라서 방과후에 서둘러 와도 제시시간에 도착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일상생활 적용정도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의 성원들이 가끔 한다는 응답을 했고, 23.1%는 자주 적용을 한다고 응답을 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자기보고식 응답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적용영역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최선의 해결책 생각해보기나 화를 조절하고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일반상황에서 회기중에 배운 기술을 비교적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 ART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과정평가

| 문항                  | 응답범주  | 빈도 (백분율)   | 계          |
|---------------------|---|--|------------|
| 프로그램 내용의 유익성        | 전혀 유익하지 않음<br>별로 유익하지 않음<br>약간 유익<br>매우 유익  | 0 ( 0.0)<br>0 ( 0.0)<br>4 (30.8)<br>9 (69.2)   | 13(100.0)  |
|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 전혀 만족하지 않음<br>별로 만족하지 않음<br>약간 만족<br>매우 만족  | 0 ( 0.0)<br>0 ( 0.0)<br>4 (30.8)<br>9 (69.2)   | 13(100.0)  |
| 프로그램 진행시간 길이의 적절성   | 적절<br>부적절   | 9 (69.2)<br>4 (30.8)   | 13(100.0)  |
| 프로그램 내용의 일상생활 적용 정도 | 전혀 적용 않함<br>가끔 적용<br>자주 적용  | 3 (23.1)<br>7 (53.8)<br>3 (23.1)   | 13(100.0)  |
| 본인의 프로그램 재참석 여부     | 참석<br>불참  | 6 (46.2)<br>7 (53.8)   | 13(100.0)  |
| 친구에게 프로그램 참석 권유 여부  | 권유 할 것임<br>권유 안할 것임   | 10 (76.9)<br>3 (23.1)  | 13(100.0)  |
|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활동      | 느낌카드 맞추기<br>역할극하기<br>비디오시청<br>문다취 포스터만들기<br>느낌쓰기와 선생님 답장<br>가치관경매<br>예측사다리 타기<br>분노일지 작성하기  | 6 (16.2)<br>7 (18.9)<br>3 ( 8.1)<br>5 (13.5)<br>6 (16.2)<br>3 ( 8.1)<br>5 (13.5)<br>2 ( 5.4)             | 37(100.0)* |
| 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 회기     | 1. 초기 집단 형성<br>2. 자신의 감정(분노)다루기<br>3. 타인의 분노에 반응하기<br>4. 문제해결 3단계 학습<br>5. 갈등해결<br>6. 집단압력 다루기<br>7. 용서발달단계 이해<br>8. 도덕적 딜레마 논쟁 연습<br>9. 가치관 정립 | 3 ( 7.7)<br>6 (15.4)<br>3 ( 7.7)<br>6 (15.4)<br>3 ( 7.7)<br>4 (10.3)<br>7 (17.9)<br>2 ( 5.1)<br>5 (12.8) | 39(100.0)* |

\* 3문항 중복응답분석

프로그램에 다시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이상이 불참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친구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6.9%의 성원이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였으므로 유익하다고는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시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가장 흥미있게 참여했던 활동은 역할극하기와 느낌카드 맞추기, 느낌쓰기와 리더의 답

장 써주기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활동의 성격상 클라이언트 참여 폭이 큰 역할극이나 느낌 써 주기가 흥미를 제고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 회기는 용서발달단계와 자신의 분노다루기, 문제해결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인지적이고, 가장 난이도가 높아 전달하기 힘든 도덕성 훈련을 주변 대인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보다 쉽게 용서발달단계로 설명한 것과 문제해결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3단계로 인식시킨 것이 비교적 성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효과성 즉,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문제해결기술, 대인관계 영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프로그램 사후에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한 결과 <표4>에서와 같이 공격성 점수에서만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 ART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문제해결기술, 대인관계기술에 미친 효과 분석

| 척 도    | 평균순위       |            | U     | Z       |
|--------|------------|------------|-------|---------|
|        | 실험집단(N=13) | 통제집단(N=13) |       |         |
| 공격성    | 9.54       | 17.46      | 33.00 | -2.64** |
| 문제해결기술 | 14.35      | 12.65      | 73.50 | -.56    |
| 대인관계기술 | 14.65      | 12.35      | 69.50 | -.77    |

\*\* p<.01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공격성 점수의 유의미한 감소는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격성을 대체하는 보다 긍정적인 대처 기술로서의 대인관계기술이나 문제해결기술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살펴볼 수가 없어서 보다 면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란(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기술이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문제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훈련프로그램의 다른 요소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도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유의미한 향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요소외의 요소 즉, 분노조절 기술이나 도덕성 훈련이 궁극적인 산물인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 요소를 여러가지 조합으로 구성해서 실험집단화 하고 각 집단의 효과성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 공격성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과정-산물연구로 분석해내

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표 6>에서와 같이 공격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인 공격성이나 언어적인 공격성, 충동성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순위차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데 반해서 회피성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획득에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본 프로그램이 현저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같이 부정적인 행동적 대처반응을 감소시키는데는 기여했으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6> ART이 비행청소년의 하위영역별 공격성에 미친 효과 분석

| 하위영역별 공격성 | 평균순위       |            | U     | Z      |
|-----------|------------|------------|-------|--------|
|           | 실험집단(N=13) | 통제집단(N=13) |       |        |
| 신체적 공격성   | 10.08      | 16.92      | 40.00 | -2.32* |
| 언어적 공격성   | 10.46      | 16.54      | 45.00 | -2.07* |
| 충동성       | 10.50      | 16.50      | 45.50 | -2.03* |
| 회피성       | 13.50      | 13.50      | 84.50 | .000   |

\*  $p<.05$

남궁희승(1997)의 연구에서도 충동적인 행동화와 관련된 영역(흥분강도, 성마름,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으나 인지영역에서는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합리적 사고 및 체계적인 문제해결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있어서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인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 영역에서의 변화를 위해서는 추후회기를 통한 좀더 오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공격성 감소와 같은 궁극적 산물을 매개하는 중간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7> ART가 비행청소년의 도덕성 수준에 미친 효과 분석

| 문항   | 수준  | 집단구분       |            | 계          |
|--|-----|------------|------------|------------|
|  |     | 실험집단       | 통제집단       |            |
| <축구부 감독교체 사례><br>어느 고등학교의 축구부 학생들이 너무 고된 훈련을 이유로 감독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학생들 생각에 선생님들도 찬성했으나 교장선생님은 감독을 그냥 두기로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이 통과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다.   | 1수준 | 5 (38.5)   | 6 (46.2)   | 11 (42.3)  |
|  | 2수준 | 3 (23.1)   | 5 (38.5)   | 8 (30.8)   |
|  | 3수준 | 5 (38.5)   | 2 (15.4)   | 7 (26.9)   |
|  | 계   | 13 (100.0) | 13 (100.0) | 26 (100.0) |
| <탈옥수 김씨사례><br>10년 선고를 받은 김씨가 1년만에 탈옥하여 가명으로 살게 되었다. 8년동안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고, 손님에게 친절하고, 종업원에게 최고의 봉급을 주었으며, 이익금의 상당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썼다. 그러던 어느날 고향마을에서 살던 박씨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왔다가 김씨가 탈옥수며, 경찰이 수배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 1수준 | 6 (46.2)   | 8 (61.5)   | 14 (53.8)  |
|  | 2수준 | 3 (23.1)   | 2 (15.4)   | 5 (19.2)   |
|  | 3수준 | 4 (30.8)   | 3 (23.1)   | 7 (26.9)   |
|  | 계   | 13 (100.0) | 13 (100.0) | 26 (100.0) |
| <영수와 학교신문><br>영수는 학교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희망을 공유하고 싶었다. 교장선생님은 먼저 그 내용을 보여주면 발행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신문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몇명의 학부모가 발행중지를 요구했고, 교장선생님도 무조건 신문발행중지를 명령했다.                                       | 1수준 | 3 (23.1)   | 5 (38.5)   | 8 (30.8)   |
|  | 2수준 | 3 (23.1)   | 5 (38.5)   | 8 (30.8)   |
|  | 3수준 | 7 (53.8)   | 3 (23.1)   | 10 (38.5)  |
|  | 계   | 13 (100.0) | 13 (100.0) | 26 (100.0) |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반응을 도덕발달수준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3수준에의 응답비율이 실험집단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축구부 감독교체 사례에서도 3수준의 응답비율이 실험집단이 38.5%이고, 통제집단이 15.4%로 나타나 거의 두배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탈옥수 김씨 사례에서는 그정도의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실험집단에서의 3수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 사례에서도 역시 3수준의 응답이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53.8%, 통제집단 23.1%로서 실험집단이 두배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도덕성 발달수준에 일정정도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축구부 감독교체 사례」나 「영수와 학교신문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두 사례의 내용이 「탈옥수 김씨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어서 보다 도덕적 판단이 용이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딜레마 토른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사례를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보다 근접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합의 및 제언

비행 청소년들은 대부분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분노, 공격성 등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특히 도덕적 가치판단의 미성숙으로 쉽게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기반하여 그들이 보이는 포괄적인 공격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정서, 행동, 인지적 측면에서 공격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중모델적 개입 프로그램인 Goldstein과 Glick의 ART 프로그램을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실제 적용해보고, 시범운영과정과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아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공격성, 대인관계기술, 도덕발달수준, 과 문제해결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RT는 보호관찰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충동성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성 평가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도덕성훈련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는 비교적 변화가 힘든 요소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효과를 보인 것은 추상적 수준에서의 가치판단 연습이 아니라 대인적 상황에서의 용서발달과정으로 구체화시켜 적용했던 것이 유의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언어적 공격성이나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화 경향은 상대적으로 단시간의 프로그램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데 반해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대인관계기술 등은 보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ART 프로그램 효과는 공격성을 유지하는 습관들을 차근차근 제거하면 수정될 수 있는 학습된 반응이라고 주장한 Bandura(1973,1977)의 사회학습설을 지지하며 가치정립의 변화, 행동규범의 훈련 등으로 공격적인 가치를 전환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Rogers (198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감정의 소화, 대화에 의한 해결, 긴장을 푸는 행동하기 등 문제와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사회적인 규범을 터득하게 되면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Zillmann 등 (197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하겠다(허일범,1997).

그러나 ART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치료적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공격성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실험 및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실험설계가 되어야 하며, 각 치료적 요소의 단일집단효과와 요소별 조합으로 이루어진 집단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과정적 요소와 산출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 변화가 시간이 경과해도 지속되는지는 치료환경 밖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중요한 타인이 변화된 행동을 강화해주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행동은 점차 감소하여 이전의 행동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Feindler & Ecton, 1980).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주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즉, 부모교육이나 교사상담을 통해 가족환경의 수정이나 학교환경에서의 원조 등을 동시에 병행하고, 이에 대한 일반화 효과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6권 2호, 29-43.
- 김계원(1988).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평가와 문제해결기술훈련의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김백영(1997).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부적응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김성림(1997). “자기표출훈련 집단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김성이·강지원·구분용·황순길(1996). “청소년비행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 남궁희승(1997).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류소영(1996).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일연구.” 석사논문.
- 박소연(1996). “지각성향에 따른 주장훈련이 아동의 공격성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박해홍(1995). “주장훈련 프로그램 적용이 공격성 및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박현선, 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2호.
- 서경아(1996). “적극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서정미(1997).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도덕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 양윤란(1996). “아동용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엄기정(1993). “발달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윤진보(1989). “주장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이상미(1993). “주장훈련이 국민학생의 공격성 감소와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이일권(1996). “통합적 심성수련이 부정화의 공격성 감소와 생활적응에 미치는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이현경(1992). “주장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 및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전석균(1995). “정신분열증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순근(1990). “가치갈등프로그램적용이 고등학생의 도덕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 허일범(1997).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및 대인불안 감소”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황용대(1992). "집단상담이 비행 청소년의 도덕수준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 Berkowitz, L.(1993). *Aggression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 McGraw-Hill,30-47.
- Coie J. D. & Dodge K. A.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ed. by W. Damon. John Wiley & Son. New York.
- Curulla, V. L.(1991).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Adult Learning-Disabled Offend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Dryfoos, J. G.(1989),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 S. Serious violent offenders: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1993 Presidential Address. *Criminology*, 32, 1-21.
- Farrington, D. P.(1978). "The Family Backgrounds of Aggressive Youths", in L. Hersov. M. Berger, & D. Shaffer(eds.),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u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England : Pergamon, 73-93.
- Feindler, E. L. & Ecton, R. B.(1986). *Adolescent Anger Control*. New York: Pergamon Press
- Goldstein, A. P. & Glick, B. (1994).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Curriculum and Evaluation." *Simulation & Gaming*, 25(1), 9-26.
- Goldstein, A. P., Gibbs, J. C., Glick, B. (1998).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for Aggressive Youth*. Research Press.
- Jessor R.(1991)."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87). "Prediction", in Herbert 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John Wiley & Sons 370-371.
- Menard, S. , & Elliott, D. S. (1994). Delinquent bonding , moral belief, and illegal behavior: A Three-wave panel model. *Justice Quarterly*, 11, 173-188.